

도지사 공약사업 관리카드

공 약 명	올림픽 유산 활용 국제관광도시 조성			관리번호	2-28
추진부서	관광개발과	담 당 자	백혜정, 이일청	전화번호	7472, 7473
협조부서	-				
실천목표	임기 내 완료		추진상황	추진중(정상)	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22~2025년
- 사업량 : 올림픽 개최 3개 시군(강릉, 평창, 정선)
- 총사업비 : 약 45,714백만 원(국비 11,377, 도비 19,957, 시군비 14,380)
- 주요내용 : 올림픽 유산과 지역의 특색있는 관광자원을 연계, 대표 관광도시 조성
 - 관광거점도시 : 동계올림픽&문화콘텐츠 기반 강릉올림픽파크 운영
 - 계획공모형 관광개발사업 : 정선 아리랑마을 관광콘텐츠 개발
 - 관광자원개발사업 : 올림픽 개최 시군의 관광자원 발굴 및 지원
 - 평창군 4개 사업(에코랜드, 느즈즈설렘길, 달빛흐름 낭만 ROAD, 힐링키즈 N파크)
 - 정선군 1개 사업(정선 신선숲, 놀~멍 쉬~멍)
 - 강릉시 2개 사업(하늘숲 전망대 스카이워크, 안목 죽도봉 스카이블리 조성)

□ 재원투자 실적 및 계획

(단위 : 백만 원)

구 분	총사업비	연도별 투자 실적 및 계획						
		기투자	2022년	2023년	2024년	2025년	2026년	임기이후
계	45,714	0	12,964	8,402	15,829	8,519	0	0
국 비	11,376	0	1,650	2,176	4,121	3,429		
도 비	19,957	0	6,451	3,723	6,989	2,794		
시군비	14,381	0	4,863	2,503	4,719	2,296		

□ 추진실적

《기 추진실적 : '24. 1분기 기준 누계》

- 관광거점도시(강릉)
 - 빙상스포츠 페스티벌 용역 타당성 검토('24.3월), 미디어 퍼포먼스 투자 심사 완료('24.3월)
- 계획공모형 관광개발사업(정선)
 - 레트로 공간 조성 2개소 완료('22.12월)
 - 아리랑마을 조성 운영사무국(DMO) 마을 스타트업 지원 및 관광인력 양성(~'23.11월)

○ 관광자원개발사업

- 평창 에코랜드 조성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재추진('23.7월~)
- 평창 힐링키즈 N파크 놀이기구 제작 및 설치 착공('23.12월~)
- 평창 달빛흐뭇 낭만ROAD 조성 전기공사 준공 등 85% 집행
- 정선 신선숲, 놀~멍 쉬~멍 산막리모델링(1단지) 7개동 준공('23.12월)
- 강릉 하늘숲전망대·스카이워크 조성 실시설계 완료('24.3월)
- 강릉 안목 죽도봉 스카이벨리 조성사업 스카이워크 디자인 검토('24. 2월)

《2024년 2분기 현재》

○ 관광거점도시(강릉)

- 올림픽 레거시권 연계 투어 상품 개발 사업 위수탁 협약('24.4월), 트레일런 대회 개최('24.5.25 / 1천 2백여 명 참가)

○ 계획공모형 관광개발사업(정선)

- 아리랑 테라스 준공('24.5월), 골목길 오픈에어뮤지엄 조성 및 투어프로그램 기획('24.2월~5월)

○ 관광자원개발사업

- 평창 에코랜드 조성사업 재착공('24.11월 준공 예정)
- 평창 힐링키즈 N파크 놀이기구 설치 추진(~'24.7월)
- 평창 달빛흐뭇 낭만ROAD 조성 준공('24. 6월 예정)
- 정선 신선숲, 놀~멍 쉬~멍 2단지 7개동 실시설계용역 추진('24.1월~)
- 강릉 하늘숲전망대·스카이워크 기반시설 조성 공사 착수('24.4월)
- 강릉 안목 죽도봉 스카이벨리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완료(~'24.6월)

《현재까지 목표달성》

주요사업	목표치	추진상황 (완료/추진중/미착수)	추진내용
관광거점도시 조성 등	<2023, 2024> 올림픽 유산 국제관광도시 조성 추진	추진중	올림픽 유산과 지역의 특색있는 관광자원 연계 사업 추진

□ 향후계획

○ 관광거점도시(강릉)

- 빙상스포츠 페스티벌 개최('24.8월 중)
- 미디어 퍼포먼스 공연 제작 및 운영('24.1~12월)

- 계획공모형 관광개발사업(정선)
 - 상유재 및 아라리촌 정비('24.6월~12월)
 - 골목길 투어 등 프로그램 및 콘서트 운영('24.5월~12월)
- 관광자원 개발사업 : '24년도 사업추진 및 '25년도 사업 평가·선정

<기대효과>

- 올림픽 유산의 활용 가치를 극대화한 콘텐츠 개발 및 인프라 구축으로 관광객들에게 다채로운 볼거리 제공을 통한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활성화